

기독교 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김 홍 수(목원대학교 교수)

우리나라의 기독교 박물관은 최근에 와서 설립된 것들이 다수를 차지하며 기독교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소장품도 많지 않다. 기독교 박물관들은 경영 주체에 따라 대학 박물관, 교회 박물관, 사립 박물관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분류에 따라 기독교 박물관의 연혁과 소장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대학 박물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이 박물관은 1948년 4월 서울 남산에서 교회사자인 김양선 목사가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전문 박물관으로 출발했다. 여기에 고고학 관계 자료, 미술 자료들을 따로 전시한 매산고고관(梅山考古館)을 병설하였다. 개관 직후 6. 25전쟁으로 인하여 귀중 진열품의 반수 이상을 분실하였으며, 본관과 부속건물이 모두 소실되었으나 미국 북장로교선교회의 원조로 파괴된 건물을 수리하여 1954년 다시 개관하였다. 1951년 1.4후퇴 시에는 미공군과 북장로교선교회의 호의로 진열품의 일부를 일본에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 무렵 국립박물관 소장품도 부산창고로 옮겼으나 안전을 위하여 미국으로 옮기는 문제가 문교부장관 백낙준과 미국무성 사이에 계속 해서 논의되고 있었다. 1950년대 중반에 이미 이 박물관은 국립박물관, 이왕가 미술관과 함께 “한국 삼대 박물관의 하나로서, 한국의 史前 문화와 고대문화에 관한 자료와, 한국기독교문화 즉 신문화에 관한 진귀한 자료와,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관한 진귀한 자료들을 수장하고 있는 특색있는 전문 박물관”으로 자리 잡았다.¹⁾ 그러다가 1958년 박물관 부지가 국회의사당 부지로 선정되어 박물관을 철수하고 박물관은 10여 년 동안 휴관하게 되었다.

그 후 1967년에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숭실대학교에 소장 자료 3천6백점을 기증하여 숭실대학교 부설 한국기독교박물관이 되었다. 1976년 대학 교정 안에 연건평 1,836m²의 독립건물을 마련했다. 소장 유물로는 국보 141호 다뉴세문경(多紐細文鏡), 국보 231호 석제청동기제작용범(石製靑銅器製作鎔范), 보물 883호 청동제지구의(靑銅製地球儀) 등의 각종 문화재를 비롯해 독립운동 관련 사료, 기독교 관련 사료

1)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십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종교교육부, 1956), 119.

및 유물이 있다. 이 박물관에는 1603년 마테오 리치가 만든 세계지도 양의현람도(兩儀玄覽圖)를 포함, 6,800여 점의 자료가 수장되어 있다.²⁾

한국기독교박물관은 고고자료실, 실학자료실, 한국독립운동자료실, 그리고 한국교회사자료실을 가지고 있다. 한국교회사자료실은 천주교 관계 자료로서 『景敎聖經』, 『天主實義』, 이승훈이 쓴 『蔓川遺稿』 등 교리서적과 초기 천주교 박해와 관련된 서신들이 소장되어 있다. 개신교 관계 자료로는 이응찬, 서상륜, 백홍준 등 초기 개신교인들이 만주에서 매킨타이어 목사와 함께 번역 출간한 『마태복음』(1882), 『제자행적』(1884), 『예수성교전서』(1887) 등이 전시되어 있다. 현재 리노베이션에 들어가 2004년 1월 중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다.

전주대학교 박물관(기독교 자료 전시실)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대학교 내에 있는 박물관으로 연건평 976㎡ 공간에 3,000점의 소장품을 가지고 있다. 1985년 2월 25일 전주대학교 중앙도서관 3층에 문을 열었다. 국내외 역사·문화·예술·민속·고고학 및 인류학 분야의 자료를 발굴하여 전시하며, 전시실은 고고미술실, 민속실, 서화전시실, 기독교자료 연구실로 나뉘어 있다. 기독교 자료 전시실은 기독교 관련 서적 및 사진을 전시하여 기독교 선교 초기 역사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당시의 생활상을 살필 수 있으며, 호남지방에서 기독교가 성장해 온 발자취를 볼 수 있는 곳이다.

한남대학교 백제문화박물관(기독교 선교 자료실)

대전광역시에 있는 한남대학교 박물관이다. 연건평 1553㎡에 소장품은 6,500여 점에 달한다. 역사·고고·민속·예술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전시하고 이를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6월 개관하였으며, 종합전시실, 백제토기요지실, 백제토기실, 문헌자료실, 기독교 선교 자료실 등의 전시실을 갖추고 선사시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자료를 전시해 놓았다. 기독교 선교 자료실은 기독교가 전래된 과정 및 발전사를 보여주는 유물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특히 1892년부터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교육사업, 의료사업 등에 대한 자료를 지역별로 나누어 수집, 전시하고 있다.

협성대학교 성서고고학박물관

경기도 화성군에 있는 협성대학교 박물관으로 1987년에 설립되었다. 기원전 3천 - 서기 6백 년 사이의 성서고고학 유물과 17 - 19세기에 걸친 유대 유물 등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유물을 통해 성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고대 이스라

2) 6천8백여 점의 소장품 중 250여 점의 주요 자료는 『도록 송실대학교 부설 한국기독교박물관』(송실대학교출판부, 1988)에 수록되어 있다.

엘의 문화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협성대학교 본관 7층에 있으며, 모두 3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다. 제1전시실에는 성서시대의 토기류, 제2전시실에는 성서시대의 일상생활, 제3전시실에는 성서시대의 기록문화와 유대교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개인 소장가들의 기증 유물, 그리고 현지에서 구입한 유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서고고학적 유물들과 유대교 유물 총 297 점을 소장하고 있다. 소장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고학적 유물들은 토기류, 무기류, 신상류, 도장류, 동전류 등이며, BC 300 - BC 600년 사이의 것들이다. 오경 두루마리(Torah Scroll)를 비롯한 유대교 유물들은 16 - 19세기의 것들이다.

가톨릭대학교 전례박물관

전례박물관은 1989년 5월에 설립되어 한국민속문화 유물과 가톨릭교회의 유물 3천여 점을 수집 전시하고 있다. 1989년 2월 김인순이 기증한 한국 고대 및 중세의 토기, 도자기, 와당, 청동제품과 조선시대의 민속품, 고서, 고문서 등의 유물 2천여 점과 가톨릭대학이 가지고 있던 가톨릭교회 전례용구 및 제의류 등이 수장 전시됨으로써 박물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전시관은 김대건 신부의 유해를 보존하고 있는 역사관, 제의, 제구, 전례서를 전시하고 있는 전례관, 김수환 추기경의 사진, 유품을 전시하고 있는 김수환 추기경관, 교리전시관, 성미술관, 민속관으로 나뉘어져 있다.

계명대학 동산의료원 박물관(선교 박물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은 지난 1999년 10월 1일 개원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구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선교사 사택 2동을 선교박물관(스윙즈 주택, 유형문화재 제 24호)과 의료박물관(챌니스 주택, 유형문화재 제 25호)으로 설립하였다. 선교박물관 건물은 1906년부터 1910년경에 건축된 것으로 여기에는 각종 성서와 선교 유물, 기독교 전래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2001년 2월 1일 교육 역사 박물관(블레이 주택, 유형문화재 제 26호)을 개관하여 100여년의 의료 선교 교육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II. 교회 박물관

절두산 순교기념 박물관

서울 마포구 합정동 절두산 성지에 있는 박물관으로 1967년 설립되었다. 규모는 연건평 2,161㎡이다. 1866년 병인박해 때 순교한 천주교도들의 신앙과 얼을 알

리기 위하여 1967년 10월 절두산순교기념관으로 개관한 뒤 2000년 11월 절두산순교 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박물관 시설은 성당, 순교자 28위의 유해를 모신 성당 지하, 한국 천주교회 관련 사료와 유물·유품 등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 야외전시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1920년대부터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피송 신부는 많은 교회 유물을 수집한 바 있으나 1945년 그가 사망하고 6. 25까지 겹쳐 유물이 거의 분실되고 말았다. 해방 후부터는 순교자 현양회에서 다시 유품 수집을 시작하여 순교기념 박물관을 개관할 때에 그 일부가 기념 박물관에 기증되었다. 개관 당시 소장품은 500여 점이었으나 1969년부터 시작된 유품 및 교회사료 발굴팀의 노력으로 현재는 서적류, 제구, 유품, 십자가 같은 교회사 관련 유물, 사진류, 회화, 야외전시물 등 총 3,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유물은 2개의 전시실과 야외 전시장에 나뉘어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 3층 전시관에는 한국교회의 창립과정을 담은 자료와 천주교 박해 관련사료 및 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다. 주요 유물로는 『천주실의』, 『성경직해』, 『주교요지』, 『황사영 백서』 필사본, 『벽위편』, 『상제상서』, 『기해일기』, 김대건 신부의 친필 서한과 유품·족보, 1866 - 1879년 사이에 순교한 신자의 명단과 역력을 담은 『치명일기』 등이 있다.³⁾

순교기념 박물관의 2층과 3층은 기념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박물관 2층의 전시관은 전례관으로, 노기남 대주교를 비롯한 주교들의 유품과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 - 1965) 이전에 사용하던 제대, 전례서, 전례북, 십자가 등이 주제별로 나뉘어 전시되어 있다.

야외 전시장에 있는 전시물로는 김대건 신부 동상, 천주교도 박순집의 묘, 박순집 일가족 16위 순교자 현양비, 주리아 묘, 오성 바위, 주어사 터에서 이전해 온 비(碑), 병인박해 때 교수형을 집행하는데 사용된 형구돌, 남상교 창덕비 등이 있다.

대한성서공회 성서전시실

기독교 성서의 한글 번역과 출판을 담당해 온 대한성서공회는 한글 성서번역 및 보급을 알 수 있는 자료, 세계의 희귀한 성서를 소장하고 있는 성서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시실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분된다. 여기에는 사해사본 및 각 나라 구약성서의 저본으로 많이 사용된 레닌그라드 사본, 그리스어 사본의 두루마리와 파피루스, 고대의 여러 나라 말 번역성서의 사본과 인쇄본, 세계최초의 인쇄본 성서인 구텐베르크 42행 성서, 세계 최초의 영어 성서인 위클리프 신약, 제임스 와 역본, 루터 성서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한국교회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우리 말 번

3) 1987년에는 절두산 순교 기념관 개관 20주년 기념화집으로 천주교 『순교성지 절두산』이 간행되었다. 이 화집은 소장품 중에서 교회사 관계 자료, 문헌 관계 자료, 유물·유품 자료를 선별하여 소개하고 있다.

역 성서도 볼 수 있다. 우리 말 성서로는 성서 번역 초창기의 발췌 번역, 날권과 완역본, 국한문 역본, 관주 성서, 개정역본, 점자 성서, 머리미디어 성서 등이 전시돼 있다.

평강 성서유물박물관

서울 구로구 오류동 평강제일교회 교육관에 마련된 성서유물 박물관은 연건평 420㎡의 규모로 1998년 11월 개관하였다. 미국의 고고학자 케네스 바인 이 평강제일교회에 기증한 고대 이집트와 오리엔트문명의 유물 2,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주요 소장 유물에는 BC 2000년경의 수메르 토판문서에서부터 미케네와 불레셋족의 토기류, BC 10세기의 이집트의 미이라, 로마시대의 장신구, 비잔틴제국의 금화에 이르기까지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3개의 전시실에 기독교적 주제에 따라 750여 점의 진품 유물이 나뉘어 전시되어 있다. 신의 창조를 주제로 한 1전시실에서는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 시대를 거쳐 발달해 온 토기의 변천사를 볼 수 있다. 가나안 지방의 양뿔 모양 토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출토된 향유병, 키프로스나 페니키아지방에서 만들어진 값비싼 토기 등이 등장한다. 토기류 외에도 청동기 시대의 등잔부터 1세기경에 만들어진 쌍심지 등잔, 로마, 비잔틴, 아랍 시대의 등잔도 볼 수 있다. 2전시실에는 인간의 타락을 주제로 이집트의 신상과 이집트 미이라, 로마시대 유물 350점이 전시되고 있다. 3전시실에는 인간회복과 영생의 길을 주제로 한 고대 이스라엘의 성서, 두루마리 성서, 고대의 보석과 동전, 설형문자 토판문서 외 문자유물 1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주안감리교회 국제성서박물관

1995년 4월 개관한 국제성서박물관은 인천시 남구 주안1동 주안감리교회 내에 있다. 교회 교육관 5층에 전시실이 있으며 미국의 성서 수집가 데이비드 웨이크필드가 기증한 희귀 성서 1만여 권과 이 교회의 담임목사였던 한경수 목사가 30여 년 동안 수십 개 나라에서 수집한 성경을 전시하고 있다. 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성서는 3백개 언어로 번역된 약 1만5천여 권에 달하며 이 중에는 구텐베르크 성서(1456), 그로짜 오디너리아 성서(1462), 루터 성서(1526), 예수성교전서(1887)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순교자기념관

순교자기념관은 개신교가 우리 나라에 뿌리를 내린지 1백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용인시 내사면 추계리에 세워졌다. 개신교 순교자들을 기리는 기념관이다. 1989년 11월에 개관하였으며 순교신앙을 전승하고, 순교사료를 보존, 기독교

교 문화예술 전시 및 순교자 유족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세웠다. 영락교회 신도 정이숙이 소유 임야 10만평을 기증했고 20개 교단으로 구성된 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회에서 건축하였다.

기념관에는 순교자 기념실과 순교관계 역사자료 및 기독교 예술작품 전시실, 소회의실, 집회실 등이 있으며 옥외에 개인기도처와 야외집회장이 있다. 순교자 기념실에는 주기철 목사와 손양원 목사 등 200여 명의 순교자들의 초상화와 약력을 담은 글, 성서, 편지 같은 순교자들의 유품들이 보존되어 있으며, 1930년대 이전 선교 초창기의 교회 및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담은 사진 120점이 전시되어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행된 성경과 한국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역대성경을 비롯한 문서자료들도 전시되어 있다.

한국기독교미술관

기독교 미술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로마의 카타콤에서 시작된 기독교 미술은 신앙의 시각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속한 것은 성화, 조각, 성물 등이 있다. 성화를 전시하고 있는 한국기독교미술관은 충남 논산군 벌곡면에 있다. 대전의 선화감리교회(이기복 목사)가 2000년 6월 선화교회의 수양관 내에 설치하여 개관하였다.

III. 사립 박물관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사립 박물관으로는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이 대표적인 박물관이다. 그밖에 1999년부터 제천에서 이진호 장로가 세워 운영하는 지적박물관에 성서 전시실이 있고, 2000년에는 최규명 목사가 계획하고 있는 성결교회 역사자료박물관이 기공식을 가졌다.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은 1955년 5월 대구에서 시작된 기독교출판사 기독교문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기독교문사는 1955년 문서를 통해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고 기독교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창립된 출판사이다 기독교문사는 한국기독교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기독교대백과사전(전 16권)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한국교회사 관련 자료를 모았다. 수십 년 동안 전국을 다니며 자료를 수집한 한영제 장로는 그 동안 모은 자료를 기독교문사에 보관해 오다가 새로 박물관을 건립하여 이관 전시하고 있다. 그는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에 3층 건물을 짓고 2001년 11월 30일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을 개관하였다. 이 박물관은 2003년 7월 문화관광부로부터 사립박물관(2종) 등록인가를 받았다.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은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전시실과 자료실, 세미나실로 이루어져 있다. 1층은 전시실로 기획 전시회를 개최하는 곳이다. 지하 1층의 자료실은 도서자료를 전시하는 곳이며, 2층의 세미나실은 각종 프로그램과 강의 등을 여는 공간이다. 소장 자료는 1945년 이전에 출판된 기독교 문헌 5천여 점을 비롯하여 한국교회사, 한국종교, 향토지 등 도서 자료와 교회사 관련 사진, 교회 주보와 요람, 목회자 설교 노트와 일기, 작고한 목회자들의 유품, 성가 레코드판과 기록 필름, 기타 박물관 자료를 합하여 10여만 점에 달한다.⁴⁾ 소장자료 중 1884년 일본에서 기독교인이 된 이수정이 한문 성서에 이두로 토를 달아 펴낸 『신약성서 마태전』, 1887년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공역하여 간행한 『마가의전한복음서 언해』는 희귀본으로 꼽힌다. 박물관에서는 소장 자료를 주제별로 선정하여 매년 한차례씩 전시회를 열고 있다. 1회 전시회는 “기독교와 한글: 한말 기독교 고문헌,” 2회 전시회는 “두고 온 교회, 돌아갈 고향: 북한교회사 관련 자료,” 3회 전시회는 “한국 초대교회 신앙생활: 선교 초기 역사 자료”라는 주제로 열렸다.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은 한영재 장로의 사비로 건립되었으며 회원들의 회비를 보태어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소장 자료를 이용하고 출판물을 받아보려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IV 기독교 박물관의 과제

지난 50여 년 동안 건립된 기독교 박물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숭실대학교 부설 한국기독교박물관, 절두산 순교 박물관, 그리고 2001년에 문을 연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이다. 기독교 자료뿐만 아니라 다수의 한국문화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이 박물관들을 제외하면, 몇몇 전문적인 기독교 계통 종교박물관이 있기는 하나 소수의 자료만을 소장 전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새로운 자료와 유물을 수집하는 일이야말로 기독교 박물관들이 당면한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의 박물관은 독립된 박물관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부설 박물관 형태로 대부분 대학이나 교회 또는 기독교 단체에 의존하고 있다. 대학 박물관의 경우에는 숭실대학교 부설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박물관의 일부 공간에서 기독교 유물이 전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것은 소장품의 부족과도 관련된 것이지만, 재정 형편과도 관련될 것이다.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람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교회에 이처럼 영세한 박물관밖에 없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기독교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것이다.

4) 『복음과 역사의 향기』, 창간호, 2003년 가을호, 19-21.